

광주·전남 '나홀로·반쪽 TV토론' 논란



나경태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와 정의당 광주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토론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TV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들의 불참이 잇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불참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유권자의 알권리차원에서 TV토론회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CMB광주방송은 29일 오전 광주 CBS와 광주경실련, 전남일보와 공동으로 오전 10시부터 박인환 민주평화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와 25분 동안 대담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애초 TV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경태 무소속 후보는 CMB측에서 사전 불참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나홀로 토론회'가 된 셈이다.

CMB광주방송은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남 담양군수 선거와 관련해 사전 불참을 통보해온 최형식

여권 후보 잇단 불참에 야권·시민단체 '불만' '유권자, 시민 아닌 '표밭'으로만 보는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동호 무소속 후보, 진정철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고 바른미래당 강승환 후보, 무소속 김현석 후보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 토론회를 진행한다.

유력후보의 불참으로 '반쪽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비단 이 선거구만 아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 역시 유력후보의 불참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 시민단체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방송사 초청 TV토론회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사)광주전남민주인문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역방송사에 따르

면 이용습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법적 강제조항이 없는 방송사 초청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역 공중파3사는 모두 광역단체장 초청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후보들의 불참이사 통보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를 거부한 이유도 여러가지다. 상대방의 흠집내기식 토론이 불 보듯 뻔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후보자간 토론이 아닌 인터뷰 방식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는 등 토론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민연련은 "광주전남은 정당 지지를 구조상 특정당의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다"면서 "그러나 이 지역 광역단체 유력 민주당 후보들은 지지율의 변화를 우려해 TV토론회를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유권자를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표밭'으로만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 전남지사 후보들도 빨이 됐다.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는 전남 공동성명을 통해 "앞으로 4년을 책임질 각오로 선거에 나선 만큼 선관위 주최 토론회 외에도 TV공개 정책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도민들에게 검증 평가받는 것이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방송사에 TV토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측에게는 TV토론회에 대해 본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답변을 하신데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TV토론회 참석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진정 도민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후보측은 "31일 KBS광주 도지사후보 초청 정책공약토론회, 6월7일 MBC광주 도지사후보 초청 토론회(신관위 주최) 등 두군데는 확정돼 '열풍 중이다'면서 "다만 KBS광주에서 뒤늦게 28일 후보초청 토론회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한 방송사에서 3일 간격으로 토론회를 두 번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며 양해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은방 복구청장 후보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

6·13지방선거 민주평화당 이은방 광주 복구청장 후보는 29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조성될 말바우시장 주차장 부지에 기존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요 공약자료를 통해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센터를 통해 시장상인들의 교육과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고 젊은층을 겨냥한 청년 소규모 입주공간 확보를 통해 말바우시장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상인들의 얼굴과 품목을 담은 지도를 작성해 말바우시장을 처음 찾는 관광객과 외지인들의 안내를 돕고, 공모를 통해 창업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말바우시장은 '정과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인 복구청장 후보 "안전 복구 행복프로젝트 추진"

6·13 지방선거문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복구청장 후보는 29일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복구를 안심·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안전 복구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생활안전 분야에서부터 자연재난 안전까지 생애주기별 안전매뉴얼을 작성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중장년층 대상 '안전리더 양성교실'을 신설해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안전기술을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사고 지역, 여성발길 치안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정보 등 생활안전지도 작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생활환경시설 점검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갑석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양동시장, 찾아오는 명품시장으로 조성"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29일 "서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찾아오는 명품시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가 내놓은 양동시장 활성화 방안은 ▲(가치)광주시 시장연합회 회관 건립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 ▲지속적인 전통시장 지원시스템 구축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광주민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지원 등이다.

47지 방안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시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송 후보는 "양동시장은 광주의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삶의 현장"이라며 "양동시장을 스토리텔링해 전통시장의 장점을 특화시키고 광주전과 연계, 광주문화를 중심으로 엮는 새로운 문화벨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 후보 "구도심 상권 반드시 활성화"

6·13지방선거 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가 29일 총장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남로와 총장로 공실률이 현재 30%를 넘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장로와 금남로 상권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동구의 지역업 비율은 90% 가까이 이르는데 상권활성화가 곧 지역경제와 동구를 살리는 길"이라며 "우선 가장 시급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주차시스템을 개선·확대하고 주변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 상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로 상권은 뷰티·패션산업 소용거리로 특화시켜 지원하고, 금남로 상권은 부자진흥지구로 확대하겠다"며 "언제든지 현장을 찾아가 상황을 점검하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상인들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당 독점 '무투표 당선' 되풀이 "선택권 박탈"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무투표 당선'을 두고 선택권과 참정권 박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광역의원 후보 10명이 나홀로 출마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다. 순천에서는 6개 선거구 중 무려 4곳이 투표없이 당선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광주 서구1 이재성(54) 전 광주 서구의회 의장, 서구4 황현택(57) 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국민주권 광주공동선대위원장, 북구5

김동찬(53)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의장이 광역의회 집행 티켓을 따냈다.

전남에선 순천에만 4명이 몰렸다. 1선거구 김기태(63) 현 도의원, 2선거구 임종기(61) 전 순천시의회의장, 5선거구 김정희(49) 민주당 전남도시정책 특위위원장, 6선거구 신민호(50) 전 순천시의원 등이다. 광양권 김태균(54) 도의원, 담양권 박종원(49) 전 담양군의원, 보성1 임영수(55) 전 보성군의회 의장도 무투표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선출 정

원이 각각 2명씩인 담양 나선선거구 원도 나선선거구에 2명씩 등록해 4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배출됐다. 무투표 당선인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광주 1명, 전남 14명 등 광역의원 15명과 기초의원 2명, 기초 비례 1명 등 모두 18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소속 정당은 죄다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TK(대구·경북)에서 올해 37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모두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점과 대비된다. 유력 정당이 씩씩이 하는 구조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며, 자신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된다.

이를 두고 지역 정계에서는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어 결국 선택권이 박탈되고, 참정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책대결, 인본론을 통해 지역 일꾼 등내 일꾼적임자를 뽑는 취지 자체도 실종되는 구조여서 지방선거의 의미가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군소 정당 한 관계자는 "나홀로 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 당선을 인정하는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